

교회소식

- 예배와 성경공부 등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예배는 오전 11시 담임목사가 본당에서 진행하는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가정에서 그 실황 영상을 보시며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영상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뉴욕세광교회"를 검색하시면, 세광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갑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뜨는 창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보와 유튜브 채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혹은 영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장의 인도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예배를, 여의치 않으면 세광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시스템이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어차피 제한된 형식으로 드러야 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결릴까 두려워 안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모임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맡은 당국자들이 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은혜를 범상히 여겨온 면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예배와 교제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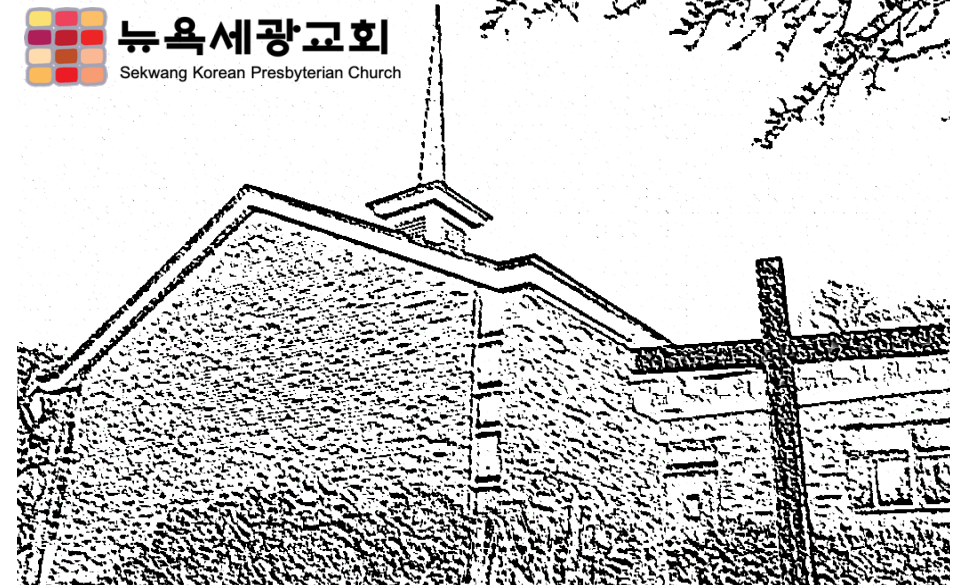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1호

2020년 3월 15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종으신 하나님” -----
Opening Hymn	God is So Good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Hymn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1:18-25 -----
Word of God	Matthew 1:18-25
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
Sermon	The Birth of Jesus Christ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찬송 -----	286장(통218장) “오 놀라운 구세주” -----
Hymn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 주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1-27

“계보,” “낳고,” “세대”라는 단어들은 “창세기” 즉 시작, 창조, 근원이란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마태 뿐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창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회복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창 12장), 다윗과 후손을 통해 모든 뜻을 이루시는(행 13:22-23)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기록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러던 아브라함의 씨,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던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름도 이 족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과 회복, 새로운 창조의 기록입니다.

계보의 면면은 위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가장 문제 많은 여자들을 통해 새 창조의 족보가 이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새 창조의 족보에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유다와 그 “형제들,” 왕의 족보는 끝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로들의 족보가 시작되었지만, “여고나와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족보이기에,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요셉의 사랑, 며느리 다말의 적극적인 “의로움,” 기생 라합의 용기, 이방 여자 룯과 유력한 남자 보야스의 거룩과 배려심, 처녀 마리아의 순종, 젊은 요셉의 의로움과 희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계보의 목표 예수께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히 5:8-9).

거듭 남으로 하나님의 호적이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은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직분,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영웅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Memo>